



| 특집 \_ 2016 달라지는 동포정책 & 한인회장 새해 인사 “화합과 소통으로 동포사회 역량 키우자”



해외 한상(韓商)기업에 청년 인턴 파견



# 성 쌓기에 주민 동원 내용을 기록한 남산신성비 외적 방어와 내부 통합 목적



1



3

- 1. 남산신성비 제1비
- 2. 남산신성비 제9비
- 3. 경주 남산에 신성을 축조하면서 각 집단이 작업 구간을 명기하고 서약하는 내용을 담은 남산신성비 탁본



2

축성에 참가한 사람들은 남산에 모여 비를 세우고 그들의 이름, 축성 담당 구간 그리고 견고한 성곽을 쌓겠다는 맹세의 서약을 새겼다.

담당자 기록에는 감독관과 마을 대표, 담당 책임자의 계급과 직책을 새겼다. 비문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무 담당자 아래에는 땅의 굴착과 석재 운반 등 여러 가지 잡무를 담당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도 존재한다. 요컨대 비문을 통해 요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휘 및 분업 체제로 신성이 축조됐음을 알 수 있다.

남산신성은 방어적 목적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진평왕 초기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려고 축성 사업에 사람을 동원한 측면도 있다. 이들은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며, 세금 징수 대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 쌓기는 전국 규모의 인력망과 군사·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다. **창**

“3년 안에 우리가 쌓은 성벽이 무너지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지금의 경주 남산 일대에 둘레 4km에 이르는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면서 그에 동원된 사람들이 자기네가 맡은 구간마다 공사를 끝내고 세운 비석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 중 한 구절이다. 이때 쌓은 성을 신라인 스스로는 물론이

요, 삼국사기에서도 남산신성(南山新城)이라고 불렀다.

비석은 1934년 경주 탑리 식해곡 부근에서 제1비가 신고된 이후 지금까지 10기가 발견됐다. 원래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추정되는 제9비는 성벽 안쪽에 붙어 출토됐다.

남산신성비 제1비 비문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신해년은 진평왕이 즉위한 후 13년이 되는 해로 서기 591년이다. 그해 2월 26일



### 표지 이야기

재단은 해외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세계한인무역인협회(월드옥타)와 손잡고 미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50여 명의 인턴을 내보낼 예정이다.

- 02 한국의 얼** 성 쌓기에 주민 동원 내용을 기록한 남산신성비  
외적 방어와 내부 통합 목적
- 04 신년사**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지원군 될 것”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5 특집** 2016 달라지는 동포정책 & 한인회장 새해 인사  
“화합과 소통으로 동포사회 역량 키우자”
- 08 동포 소식** 필리핀 · 미국 동포 자율방범대에 모곡서 장비 지원 외
- 11 동포 캘린더** 미국 한인 대학생 정치력 키우기 나선다 외
- 12 기획** 한해 100만 명 한국 관광객 맞아 급성장한 태국 한인사회  
한류 전파에 적극 나서며 위상 제고
- 14 글로벌 코리아** 시드니한인회 역사상 첫 1.5세대 회장 백승국  
중남미 최초의 한인 지자체장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 시장  
한국 정착한 베트남 양자 일대기 무용 공연한 전유씨
- 16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중유럽 4개국과 첫 정상회의  
중유럽 원전 · 인프라시장 개척
- 17 지구촌 통신원** 재외동포 정체성의 보루, 일본학교 속 ‘민족학급’을 가다  
1주일에 한번 한국 문화 교육
- 18 동포의 창** 파독 간호사 출신 소프라노 박모아 덕순  
“노래는 내 인생, 음악이 고통을 치료하죠”
- 20 동포정책 Q&A**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재외선거 제도  
재외선거인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 21 동포문학** 연근  
김은옥 \_ 호주 \_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2 OKF 뉴스** 가나 · 인도 등 한상 기업에 인턴 파견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 · 멋** 고성 거진항의 겨울 별미 명태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최고의 맛
- 26 재단 공지**

#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지원군 될 것”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랑하는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한층 더 실감하였습니다. 역사적 굴곡을 딛고 당당히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성장한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과업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뿌리를 내린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150년의 해외 이주 역사 속에서 놀라운 적응력과 자생력을 길러온 우리 재외동포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한민족의 기상을 발휘하며, 모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각지에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힘으로 우리 재단은 지난 한 해 세계한상대회의 ‘한상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재외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동포 2·3세 초청 연수를 통한 민족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거주국 내 전문 분야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도 수행했습니다.

국경의 경계가 흐려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유기적으로 얽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정 과제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상호 유대감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지구촌 176개국 720만 재외동포가 거주국 현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범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소중한 국력의 외연으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 임직원 모두는 동포사회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리며 변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병신년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 그리고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창**

“2016 재외동포정책 편의성 증진된다”

# 공인인증서 발급 확대, 국내거소 신고 폐지

**공**인인증서 발급이 160여 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며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이 재외동포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외국 영주권 소지자는 국내에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으로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제도는 완전 폐지된다.

## 모든 재외공관서 공인인증서 발급

지난해까지 40여 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올해부터 160여 개 해외 모든 공관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를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비사업 목적 고국 방문 거주기간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를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관광, 질병 치료,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 기타 관혼상제 등을 위해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영주권 가진 재외국민, 기초생활 급여 대상 제외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 도입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과 제출도 편리해진다.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인 ‘아포스티유(Apostille)’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다. 법원은 외교부와 연계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7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이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존 국내거소 신고자들이 신분증명 수단이 없어져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창**

## “화합과 소통으로 동포사회 역량 키우자”

#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 “배려와 존경으로 소통하는 동포사회 구축”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유럽지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유럽한인총연합회 임원진과 각국 한인회장님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소통하는 유럽 한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포 원로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의 주역인 차세대까지 두루두루 만나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지적은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유럽 한인 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중남미 땅에는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벌써 50년이 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민사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민족의 특유의 끈기와 기백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중남미 사회에서 사회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동포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외 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 “한중 민간 우호 증진에 노력”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중국한국인회는 새해에도 희망찬 내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지니고 전 중국 66개 지회와 80만 교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또 한중 양국의 민간 우호 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4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통해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13억 내수시장이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생김은 물론 양국의 경제-통상을 넘어 전체적인 부문의 연계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한인 여러분 모두 한중 양국의 정세와 정책에 더욱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시어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자 모두 선거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한민족의 끈기와 기백으로 난관 극복”

박세익 중남미한인총연합회 회장



2016년도 병신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처럼 국제적인 불황과 경제난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720만 동포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단한 저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은 그간 땀 흘려 가꾸어 온 우리 한인 동포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력이 결함

## “고려인 동포와의 관계 재정립에 힘쓸 것”

이혁연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회장



고려인 동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우선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러시아 동포’와 ‘CIS 동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고국과 떨어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번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카레이스키’라고 러시아어로 호칭했던 게 고려인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 이념도 바뀌었고 그들을 완전한 우리 동포로서 대접하려면 호칭부터 바꾸어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CIS 총연합회에서는 올해 총회 때 한인회장 및 고려협회 회장님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사업 번창하시고 모든 분이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민간 외교관으로 자긍심을 갖자”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



2016년에는 부디 재외동포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 모두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나 우리 720만 재외동포 한 명 한 명이 모국을 대표하여 활약하는 민간외교관의 신분임을 자각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성스러운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활동성이 강한 원숭이가 만난 붉은 원숭이의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뜨거운 기운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를 빈틈없이 아우르는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 한인사회 간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동포사회의 위상을 더욱 격상시킬 수 있는 한 해로 아로새겼으면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글귀와 같이 2016년의 끝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원하는 모든 것에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동포사회 더욱 뭉치는 한 해 되길”

승은호 아시아한인총연합회 회장



지난 연말 세계적 신용등급평가회사인 무디스에서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Aa2 이상 등급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새삼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신용등급의 향상

은 대한민국 내의 경제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동포 역시 일정 부분 이바지한 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2016년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더욱 뭉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자 거주하는 국가 내에서의 한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네트워크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화상(華商)에 못지않은 한상(韓商)의 단결력을 세계만방에 떨치기를 기원하며 재외동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불굴의 정신으로 일치단결”

이동우 대양주한인총연합회 회장



지난해 국내외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든 국민이 피와 땀을 쏟아 이겨냈습니다. 최근 무디스가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열매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IS의 극악무도한 파리 테러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파리 시민은 “파도에 흔들릴 지언정 침몰하지 않는다”라며 이겨냈습니다.

새해에 우리 앞에도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제가 있겠으나, 파리 시민 못지않은 불굴의 정신으로 일치단결하여 잘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

## 필리핀 · 미국 동포 자율방범대에 모국서 장비 지원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 자율파출소’가 지난해 12월 23일 모국으로부터 형광 조끼, 신호봉, 경적, 휴대용 손전등 등 방법 장비를 지원받았다. 앙헬레스의 한인 자율파출소는 동포 ·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 한인회가 2010년 설치했으며, 현재 14명이 참여해 한인 타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방범대’도 같은 지원을 받았다. 김현명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지난해 12월 16일 LA 경찰국 올림픽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한국 경찰청을 대신해 LA 한인 타운 지킴이 역할을 하는 한인 방범대에 방법 장비 20세트



로스앤젤레스 한인 자율방범대는 동포 2세인 자원봉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동포 · 관광객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세트당 야광 조끼 · 신호봉 · 손전등)를 전달했다.

한인 방범대는 브라이언 김 대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목~금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올림픽경찰서 경찰관들과 팀을 이뤄 한인 타운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한인 방범대는 지난 1987년 한인 5명이 모여 자경단 형식으로 출범했으며, 1992년 LA 폭동 때 한인 타운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금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방법 장비 전달식에는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과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 사할린 한인 53명 영주귀국... 사업 마무리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던 한인 1세들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대한적십자사는 러시아 사할린 · 블라디보스토크 · 하바롭스크 ·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는 한인 53명이 지난해 12월 14일, 16일, 17일 3차례에 걸쳐 영주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내 김포 솔터아파트 2 · 3단지에 각각 입주했다.

이들의 영주귀국은 1989년 7월 한 · 일 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적십자사가 나서서 진행한 ‘사할린 한인 지원 공동사업’에 근거한다. 이 사업에는 영주귀국과 함께 일시 모국 방문, 귀국자 역방문 등의 사업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영주귀국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했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던 한인 1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거나 거주한 한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장애 자녀에 한하고 있다.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번 53명을 포함해 4천346명이 고국의 품에 안겼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가장 많은 1천300여 명이 돌아왔다.

문제는 이번 53명을 끝으로 영주귀국 사업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일본적십자사는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사할린 잔류 한인 1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앞으로 3년간 영주귀국 희망자는 2016년 7명, 2017년 3명, 2018년 1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손을 떼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희망자에 대해서는 귀국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오스트리아 동포들, 유럽 난민 돕기에 동참

오스트리아 동포들이 유럽 난민 돕기에 힘을 보탤다. 유럽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클래식 음악가들을 후원해온 문화예술기획사 WCN(World Culture Networks · 대표 송효숙)은 지난해 12월 3일 빈의 도나우파크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 영산홀에서 '제2회 난민 구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음악회를 연 WCN은 모금된 1만 5천260유로(약 1천930만 원)를 빈 가톨릭 교구 소속 자선단체인 '카리타스&두'에 기부했다.

송효숙 대표는 "얼마 전 터키 해안가에서 발견된 난민 아이의 주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고



송효숙 WCN 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의 한인문화회관에서 '제2회 난민 구제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오는 시리아 난민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란 생각에 자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음악회에서는 빈 국립오페라단의 바리톤 솔리스트 양태중, 독일 최고의 ARD국제음악콩쿠르 2015년 피아노 듀오 2위에 오른 신박 듀오, 성악 2위 입상자인 소프라노 이수연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피아노 연주·한국 가곡 등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완 주 오스트리아 한인 대사 부부, 박중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천영숙 오스트리아 한인 연합회장, 황병진 재오한인간호사협회장, 조운영 빈 한글학교 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인니 자카르타 옛 동네, 한국식 벽화 마을로 탈바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한국·인도네시아 우호 친선의 상징물인 한국식 벽화 마을이 조성됐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자카르타예술대학교(IKJ)가 공동으로 자카르타 도심에 있는 낙후한 마을인 찌끼니 지구를 알록달록한 벽화 마을로 탈바꿈시키고, '찌끼니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벽화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IKJ 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신기업 한인회장, 실비아 무르니 자카르타 주지사 대리, IKJ 교수와 대학생,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서울 이화벽화 마을을 본떠 만든 찌끼니 벽화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1년 반 정도 걸렸다. 짧지 않은 시간 IKJ 관계자의 한국 벽화 마을 답사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 한국·인도네시아 우호 친선의 상징물인 한국식 벽화 마을이 조성됐다.

연구에 이어 자카르타 지방정부 당국의 허가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

IKJ 교수와 학생, 현지 한인 등 250여명은 7일 동안 밤늦게까지 벽화를 그리며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낙후한 도심 마을에 양국의 상징인 남대문, 한옥마을과 모나스 탑, 바틱 문양 등을 그림으로 장식해 생기를 불어넣었고, 음식점이 나란히 있는 찌끼니 거리는 깔끔한 카페촌으로 변모했다.

신기업 한인회장은 "낙후된 찌끼니 마을이 주거환경 개선과 방문객 유치를 통해 활성화될 것"이라며 "찌끼니 벽화 마을은 양국 미술인, 지역 주민, 청소년 등이 힘을 합쳐 만든 한국·인도네시아 우호 친선의 상징물"이라고 설명했다.

## 동경한국학교에 경사... 20명 중 10명 와세다대 합격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에 자리 잡은 동경한국학교가 경사를 맞았다. 일본의 최고 명문 사립대로 꼽히는 와세다(早稻田)대에 10명이나 합격한 것이다. 동경한국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79명. 이 가운데 59명이 한국 대학 진학반(K반)이고 20명이 일본 대학 진학반(J반)이어서 수험생 절반이 와세다대에 진학하는 셈이다. 2015학년도에는 1명, 2014학년도에 2명이 이 대학에 진학한 것에 견주어도 실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61년의 역사를 지닌 동경학교는 전교생이 582명에 지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두고 있다. 일본 영주권자(52.75%), 일시체류자(32.30%), 특별영주권자(6.19%), 이중국적자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종이접기 강사 세미나'에서 교사, 학생, 한글학교 강사 등이 참가해 한국식 종이접기를 배웠다.

(6.01%), 일본인(2.75%) 등 국적이나 체류 자격 분포도 다양하다.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학습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교직원과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7개월 전 이곳에 부임한 김득영 교장은 "시스템을 변화시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동경학교의 교직원들은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장을 제외하고 모두 재일동포다.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김득영 교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일본 교육 전문가. 나라(奈良)교육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단국대에서 일본 교육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한인 동포 등 참여한 상파울루 한류 발전 세미나

브라질 내 한류 현황을 듣고 한류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지난해 12월 7일 상파울루 시내 한 호텔에서 현지 문화계 인사와 학생, 문화원 명예기자단, 한인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한류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류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한류 팬 발표회, 한류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주제발표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류 프로젝트 공모전은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인재 양성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들로부터 한류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를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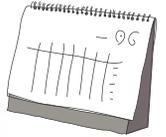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현지 문화계 인사와 한인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한류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연등 페스티벌'을 비롯해 '찾아가는 한류 박물관', '국경 없는 사랑', '스마트 앱을 통한 교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류 팬 발표회에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발족한 한류 사랑 모임 '비바 코레아(Viva Coreia)' 회원이 케이팝(K-Pop) 대회 개최 경험을

설명했다. 또 한류 관련 사이트인 '브라질코리아'(BrazilKorea)의 운영자가 나와 브라질 내 한류 현황을 소상하게 전했다.

한편, 세미나 말미에는 자문그룹과 문화원 명예기자들이 함께하는 '태극 퍼포먼스'와 한국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장**



## 미국 한인 대학생 정치력 키우기 나선다

미국 거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설립된 시민 참여센터(KACE · 대표 김동찬)는 한인 대학생들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미주 한인 대학생 풀뿌리 대회'를 2016년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시민참여센터가 2014년부터 워싱턴DC에서 진행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대회'의 대학생 버전으로, 한인 2세 학생들이 미래의 시민 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 도쿄 한국문화원서 신년 맞이 한국 전통예술의 향연

한국이 자랑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이 일본 도쿄에서 현지인과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신년 맞이 전통예술 공연을 펼친다. 주일한국대사관 도쿄 한국문화원이 1월 14일 도쿄 신주쿠의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선보이는 '신년 맞이 한국 전통예술 한마당'은 가야금 독주 '침향무', 판소리 '홍보가', 생활과 단소의 합주 '수룡음', 전통 무용 '준영전', 사물놀이 등으로 공연 레퍼토리를 짰다.



##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계 은행 탄생

미국 한국계 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 1위인 BBC은행과 2위인 월셔뱅크가 캘리포니아 비즈니스감독국(BDO) · 연방예금보통공사(FDIC) 등의 통합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두 은행은 지난해 12월 주식을 전량 맞교환하는 '동등 합병' 방식의 최종 합병계약을 교환했다. 합병은행의 행장은 케빈 김 BBC은행 회장, 이사장은 고석화 월셔뱅크 이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 중국 연변FC 2월에 제주에서 전지훈련

2016년 시즌에 중국 프로축구 1부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연변FC가 2월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연변FC는 올 시즌 2부 갑(甲)급 리그 우승과 함께 상위 2개 팀에 부여되는 1부 리그 승격권을 획득했다. 2000년 갑급 리그로 강등된 이후 16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하는 이번을 일으킨 연변FC는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의 첫 해외 전지훈련 후 제주도로 이동해 막바지 훈련을 실시한다.



## 뉴커머 재일동포 기업 에이산 해외 면세점 진출

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신중주자를 가리키는 '뉴커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에이산(永山 · 회장 장영식)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해외 면세점 진출을 추진한다. 장영식 회장은 "창업 20년을 맞아 일본 내 면세점을 늘리는 한편 해외 면세점 진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산은 도쿄 등 17개 지역의 면세점 운영, 관광버스 운행, 전동자전거 제조 및 유통 등 사업 다각화로 연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올리고 있다.



## 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 한인회 통합기구 추진

인도네시아한인회가 지방에 산재한 13개 지역 한인회의 통합기구를 추진한다.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 3만 명의 한인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한인회는 그동안 외부적으로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 올 1월 인도네시아 5대 한인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양영연(70) 회장은 "여러 단체가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위상도 강화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해 100만 명 한국 관광객 맞아 급성장한 태국 한인사회 한류 전파에 적극 나서며 위상 제고



2015년 기준으로 태국에 거주 및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는 1만 9천700명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콕에 1만 3천여 명, 푸껫에 1천500명, 치앙마이에 3천300여 명이 살고 있다.

태국에 있는 재외동포는 대부분이 여행업, 요식업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 운영하거나 한국계 투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국과도 사업상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중 일부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태국 내의 한국 동포사회 형성 과정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동포사회 원로들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용돼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후 태국에 정착했다. 이들은 주로 무역업·제조업에 종사했으며 현재 생존자가 거의 없다. 제2세대는 베

트남전이 끝난 후 태국으로 이주해 정착하거나 중동 건설 붐과 함께 태국 인력 송출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착했다. 이들은 현재 주로 무역업, 여행업, 요식업에 종사한다. 제3세대는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으로 진출한 경우와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 증가에 따라 파견된 상사 지사원 및 투자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재 체류 동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 내에 있는 한국 동포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재태국한인회이다. 이외에 태국 각지에 한인회 지회가 있는데, 파타야 한인회, 푸껫 한인회, 치앙마이 한인회 등이 있다.

재태국한인회는 1964년 방콕에서 처음 설립됐다. 초대 회장으로 이경순(1905~1977) 회장이 취임했다. 이경순은 1924년 조선키네마주식회사에 입사하며 영화계



4



5

에 입문해 '심청전', '장한몽', '숙영낭자전' 등 8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1920년대 말 일제의 영화 검열이 강화되자 국내 영화인 중 이경순, 정기탁, 전창근 등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경순과 정기탁은 상하이에서 '은막지화', '양자강' 등 영화를 제작했다. 1937년 제2차 상하이사변이 발발하고 이 지역이 일본 점령 아래로 들어가자 정기탁은 귀국했으나 이경순은 태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재태국한인회는 한류를 태국에 전파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가수, 배우 등 한류 스타가 태국에서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때 한인회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한인회의 위상도 높아져 있다.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게임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한류 열풍은 계속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

한편 한인회는 태국에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 데도 앞장서왔다. 태국 내 태권도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콕뿐만 아니라 푸켓, 치앙마이 등 소도시에도 한인회 소속인 감독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한인회도 격년제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인회는 한인 친선 골프대회, 사랑의 바자회, 향수의 운동회, 명절 사랑의 떡 나누기, 송년 한인 화합의 밤, 한인 복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한인 청소년 미술대회와 백일장도 열고 있다. 한인 결속을 위해 한인회 사무실에서 도서를 대여하고 태국어 강좌도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도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동포들의 노력에 정부 지원을 더해 2001년 3월 30일에 방콕한국국제학교를 개교했다. 이 학교는 태국 내 최초 전일제 한인학교로 2002년 3월 1일 모국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취득했다. 방콕한국국제학교는 초·중·고 전 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학생 93명, 교직원 28명이 있다. 이밖에도 방콕, 푸켓, 치앙마이 지역의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일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태국은 한국전쟁 때 가장 먼저 파병한 나라 중 하나다. 태국군 대대는 1952년 중부 전선에서 중공군 연대병력을 맞아 싸워 이겨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국은 전통적인 혈맹국인 태국과 오랜 기간 우호를 증진해 왔으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태국인들의 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한인들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매우 우호적이다. **장**



6



7

1. 태국 방콕의 동포들이 지난해 6월 16일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를 마친 한국 선수들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
2. 태국 방콕에서 2013년 11월 23일 동포와 태국인 5천여 명이 참여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3. 태국 방콕 한국국제학교의 초·중·고 학생 80여 명이 2013년 6월 10일 '찾아가는 독도 학교' 특강을 듣고 있다.
4. 재태국한인회가 2013년 8월 30일 한인상가가 밀집해 있는 방콕 수쿰뎃 플라자에서 동포와 한국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동포 안전 지킴이 센터를 발족했다.
5.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2011년 11월 30일 방콕 방전 구역에 있는 한국전 참전마을을 방문, 한국 소방방재청이 기증한 구명조끼와 라면, 생수 등을 전달했다.
6. 태국 방콕에서 식당, 식품점, 미용실 등 한인 상가가 밀집한 수쿰뎃 플라자 전경
7. 태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문화공간인 태국 한인문화회관이 2005년 12월 1일 방콕 수쿰뎃가에 개관했다.

# GLOBAL KOREAN

시드니한인회 역사상 첫 1.5세대 회장 **백승국**

## “한인회 활력 위해 젊은 층 참여 기대”



“시드니 한인 1세대와 2, 3세대를 잇는 가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젊은 층에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젊은 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백승국(55) 전 재호주 대한체육회장은 제30대 호주 시드니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인 확정된 뒤 지난해 7월에 취임했다. 고등학교 때인 1978년 가족을 따라 호주 땅을 밟은 백 당선자는 약 50년의 시드니한인회 역사상 첫 1.5세대 회장이 되면서 변화를 희망하는 한인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다.

2년의 임기 동안 약 8만 명의 한인을 이끌 백 회장은 “생계 문제 등 그동안 여러 이유로 한인회에 동포들의 참여가 폭넓지 않았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장이 바뀌더라도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

라고 약속했다.

백 회장은 아버지 백낙운(81) 씨가 24~25대(2003~2007) 회장을 지내 시드니한인회의 첫 ‘부자 회장’의 기록도 세웠다. 아버지의 경험과 조언은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다. 백 회장은 “출마 의향을 밝혔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는 하지 않으시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백 회장은 한인회의 활력을 위해, 또 자신도 청소년기에 이민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특히 젊은 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안전 문제와 임금 관련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백 회장은 “동포가 없는 한인회는 상상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는 문턱이 낮아져 동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차 한잔할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남미 최초의 한인 지자체장 **정흥원** 페루 찬차마요 시장

## “한국이 내 등 뒤에 있어 자랑스럽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315km 떨어진 도시 찬차마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 차로 8시간가량 달려야 하는 이 도시는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하지만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 작은 도시의 시장은 다름 아닌 한국인 정흥원(현지명 마리오 정·69) 씨다. 지난 2011년 중남미 최초의 한인 시장이 된 그는 2014년 재선에도 성공해 5년째 찬차마

요시를 이끌고 있다. 찬차마요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장은 그가 처음이다.

그가 시장이 되고 나서 찬차마요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시의 기술 이전으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해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게 됐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짓는 보건소도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 시로부터 소방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들어왔다.



이 모두가 한인 시장이 일궈낸 ‘최초의 사건’이다. 찬차마요 시민이 정 시장을 또다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사업을 위해 1986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정 시장은 1996년 페루 리마로 터전을 옮긴 뒤 2000년 찬차마요에 정착했다. 원주민이 대다수인 찬차마요에서 그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정 시장은 음식점과 함께 생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낯선 나라에서 온 ‘마리오 정’은 점차 현지 주민에게 친숙한 이름이 됐다.

그는 재임 기간 찾아온 병마 때문에 애초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 없었다. 2012년 신장암 판정을 받았고, 6개월 만에 폐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의사로부터 ‘암과 싸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약을 먹지 않고 음식 조절만 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며 밝게 웃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정 시장은 “많은 시민이 한국인 시장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이란 나라가 내 등 뒤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조국에 공을 돌렸다.



## 한국 정착한 베트남 왕자 일대기 무용 공연한 전유오 씨 “베트남 정서 융합한 한국 춤으로 두 나라 관객 소통”

“무대 위의 작은 몸짓이지만 한국과 베트남을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아우꼬극장에서는 한국 무용가 전유오(55) 씨가 안무를 맡은 ‘800년의 약속’이란 무용극이 호찌민친선협회와 호찌민 오페라하우스 주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후원으로 펼쳐졌다. 전 씨는 베트남 연극배우 부이 녀 라이, 독일 재즈 피아니스트 피터 신들러와 함께 베트남 리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리롱프엉의 삶을 무용과 연기, 음악으로 표현했다.

프엉 왕자는 약 800년 전인 13세기 정변을 피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 고려 웅진반도에 정착했다. 이곳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공로로 고려 고종으로부터 화산이 씨라는 성을 받아 ‘이용상’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의 아들들도 높은 벼슬을 했으며 현재 한국에는 약 2천 명의 후손이 사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날 공연 직전 인터뷰에서 “한국적 인 춤, 유럽 스타일의 음악, 베트남의 정서를 융합해 국경과 문화 영역의 장벽을 허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공연이 서로 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두 나라 관객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1991년부터 13년간 서원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했던 전 씨는 남편 직장과 사업 관계로 2004년부터 베트남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무용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는 전 씨는 무용 작품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4년에는 호찌민 오페라하우스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접목한 ‘사이공 아리랑’을 공연했다. 지난해 6월에는 호찌민시립발레단과 함께 베트남 미찌우 공주의 전설을 소재로 다룬 무용작품 ‘활’을 선보였다. **장**



# 박근혜 대통령 중유럽 4개국과 첫 정상회의 중유럽 원전 · 인프라 시장 개척



-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체코 프라하 체르닌 궁에서 비셰그라드 그룹(V4) 총리들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2. 박근혜 대통령이 비셰그라드 그룹 총리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중유럽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박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파리 일정을 마친 뒤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박 4일간의 프라하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3일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V4) 소속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들 국가의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또 과학기술과 문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를 포함한 창조경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V4 정상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통해 국가별로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박 대통령은 한·체코 양자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운영 능력에서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의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보후

슬라프 소보트카 총리는 양국 원자력공동위와 원전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체코의 다목적 공격헬기 사업에 한국산 수리온 헬기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철도와 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고, 경제공동위 등 양국 간 경제 협의 채널을 원활히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드워 총리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헝가리 양자 회담에서 헝가리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개·보수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금융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공동위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공동위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피초 총리는 원전 협력 문제 등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하면서,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당국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ICT 기반 의 의료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

# 재일동포 정체성의 보루, 일본학교 속 ‘민족학급’ 을 가다 1주일에 한번 한국 문화 교육

“**일**수, 좋다.”

12월 4일 일본 오사카(大阪)시 이쿠노(生野)구의 미유키모리(御幸森)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명이 만들어내는 풍물 가락이 학교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상쇠(뿔과리)를 맡은 여학생이 “지화자”라고 선창하자 나머지 학생들이 “일수, 좋다”라며 추임새를 넣었다. 태평소를 연주하던 남학생은 능숙하게 상모 돌리기를 선보였다. 모두 재일 한국인 또는 한국계인 이들은 1주일 뒤 있을 ‘민족학급’ 발표회 준비에 한창이었다.

민족학급은 재일동포 학생들에게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 공립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방과 후 학급 프로그램이다. 1주일에 한 번, 1시간씩 학년별로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부하고 한국 악기도 배운다. 겉으로 보면 일본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화(同化)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는 차세대 재일동포들에게 민족학급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보루’ 인 셈이다.

미유키모리 초등학교가 있는 이쿠노구는 오사카에서도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상 전교생 110여명 가운데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재일동포인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한다. 미유키모리 초등학교가 24년여간 민족학급을 운영해 온 배경이다.

민족학급은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를 비롯한 오사카 시내 10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족학급을 시행하는 학교도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오사카와 교토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일본 학교 내에서 민족학급 시간이 마련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재일동포 사회가 끈질기게 일본 당국과 싸워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48년 일본 문부성의 조선인 학교 폐쇄령에 반대해 일어난 ‘4·24 한신(阪神) 교육투쟁’이 한 계기가 됐고, 1991년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교환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를 통해 민족학급 실시를 배려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교섭을 통해 오사카시는 전체 민족학급 시행에 연간 3천만 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

1. 미유키모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아래 풍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2. 미유키모리 초등학교 내 ‘민족학급’ 전용 교실에 한국에 관한 자료와 한복 등이 걸려 있다.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유네스코 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로 지정돼 일본인 학생들에게는 국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시모토 지에토(橋本智惠人) 교장은 학교를 찾은 한국 기자들에게 “(민족학급은) 재일 한국인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습 활동”이라고 말했다. **창**

파독 간호사 출신 소프라노 박모아 덕순

# “노래는 내 인생, 음악이 고통을 치료하죠”

박경란 | 재독 칼럼니스트



**작**은 오두막집에서 네 살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 하나의 피의 끈이었던 할머니는 소녀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하지만 소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바닥 사이로 삶을 보아버렸다.

6·25 한국전쟁은 소녀의 가족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1951년 소녀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갔다. 무사귀환을 바랐던 가족의 바람은 아버지의 전사 소식으로 가을 낙엽처럼 스러졌다.

어머니는 어린 소녀를 남겨두고 새 삶을 찾아 바람처럼 떠났다. 언덕 너머로 고운 한복 차림의 어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소녀는 붓물처럼 터져오르는 울음을 몇 번이고 꿀꺽 삼켰다. 할머니의 가려진 손바닥 틈으로 보이는 세상은 더없이 잔인하고 외로웠다.

그때부터 소녀는 바람의 노래를 꿈꿨다. 시간의 터널은 잔결음으로 소녀 박덕순을 60대 초로의 부인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그녀는 간호사에서 파독 간호사로, 그리고 성악가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어린 날의 상처와 고통은 깊은 주름을 남기는 법이다. 하

지만 그녀의 첫인상은 세월의 때가 손대지 않은 순수함과 투명함이었다. 여성스러운 미소는 저절로 안아주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게 했다.

박모아 덕순 씨(64세)는 강했다. 인생의 고비에서 조각난 편린들을 모아 노래로 승화시켰다.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 특히 독일에서 소프라노로 성공하기까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아국의 삶이었을 게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은 시원스러웠다.

“노래가 좋으니까요. 고통스러운 기억도 세월이 흐르면 모두 추억이 되니까요. 문득 기억이 떠오르면 우리 가곡을 불러본답니다. 가사 속에 절절히 숨겨져 있는 인생을 음미하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순천간호학교 재학 시절의 기억은 성악가의 꿈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음악 시간에 반 친구들과 동심초를 합창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합창소리를 듣던 선생님이 멈추는 거예요. ‘어디선가 좋은 소리가 나는데 누구냐?’ 는 거죠. 바로 저였거든요. 호호”

선생님은 그녀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보게 했고, 예쁜 소리라고 칭찬하며 성악을 공부하라고 권유했다. 노래를 좋아했지만 전문적인 음악 공부는 생각해보지 않은 터였다. 게다가 빨리 졸업해 간호사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녀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꿈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노래에 대한 열정이 스멀거렸다.

졸업 후 상경해 마포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박 씨는 돈을 벌어서 음대에 진학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불투명했다. 그때 ‘파독 간호사 모집’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병원 간호과장 또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녀에게 독일로 가서 꿈을 실현해보라고 조언했다.

“음악을 공부하기에 독일만큼 좋은 데가 없었죠. 간호사로 일하며 음대에 진학하고 싶어 결국 독일 간호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박 씨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다. 바로 홀로 계신 할머니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외로움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에게 큰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권유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손녀에게만큼은 무지와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았다.

1973년 독일 슈바이푸르트에 도착한 박 씨는 당황스러웠다. 음악대학은커녕 일반대학 하나 없는 작은 도시였다. 무조건 음악을 배우고 싶은 열정에 서베를린으로 이주했고, 그곳은 그녀 인생 제2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병동 생활을 하면서 성악 레슨을 받고 언어를 공부한 끝에 2년 후에는 베를린 국립음대 성악과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물론 병동 생활과 공부를 함께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힘든 만큼 그 열매는 정말 달았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학 때는 간호사로 생활비를 모았고, 적은 생활비도 쪼개어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에게 송금했다. 어려움도 많았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결핵에 걸려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노래하는 사람이 폐에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통은 희망을 담금질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이 삶의 의욕이 되었던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1979년 독일 합창단에서 남편 에버하르트 모아 씨를 만나 결혼 후 그녀의 노래의 욕은 가속 행진을 계속했다.

1989년부터 연주자로 활동한 그녀는 노르웨이 작곡가인 에드바르 그리그의 곡을 접하면서 곡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노르웨이어도 배웠다. 덕분에 그리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 베르겐에 있는 그리그 박물관 연주홀에 초청되어 독창회를 여러 차례 펼쳤다. 또한 노르웨이의 유명한 작곡가 하계루프 볼과 인연을 맺어 2002년에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불의 80세 생신축하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그

가 작곡한 성악곡들을 맡아 연주했다.

그 페스티벌 연주곡들 중 두 곡은 세계 최초의 연주였는데 페스티벌이 끝난 뒤 불은 ‘인간의 신뢰’라는 곡의 오리지널 악보 서면에 자필로 ‘박모아 덕순에게 헌정’이라고 써서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1989년 이후 매년 최소 5번 정도의 독창회를 열었으며, 독일 외에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도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씨는 10년 전부터 뜻깊은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매년 대보름 즈음에 자선공연을 펼쳐 그 수익금 전부를 북한 라진병원 돕기 성금으로 보냈고, 한인회관 증축 기금에도 보태고 있다.

그녀의 연주를 보러 오는 청중의 90%는 독일인이다. 가난과 슬픔을 거름삼아 듣기 좋게 응축된 그녀의 노래는 정서가 다른 독일인들의 심장에도 파고들었다. 그녀가 경험했던 성장의 시간과 경험들은 한국 가곡 속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독창회를 열 때마다 우리 한국 가곡을 프로그램에 넣어 유럽 청중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노래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프라노 박모아 덕순.

지금 그녀는 3월 19일에 열린 대보름 자선공연 1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서예와 미술에 조예가 깊어 5월 29일엔 ‘한국 서예와 가곡의 만남’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그 섬없는 열정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지고지순함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에 가능했다.

또 다른 삶의 기행을 위해 황급히 자리를 뜨는 그녀의 뒷모습에 잠시 시선을 잃었다. 새삼 ‘사람은 도서관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창**



# 재외국민의 참정권과 재외선거 제도

## 재외선거인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오는 4월이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치러진다. 재외선거 제도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선거 제도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국민 통합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하 '일시체류자'라 함) 및 외국의 영주권 취득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하 '영주권자'라 함)을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외국민 중 일시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일시체류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여권 사본을 첨부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을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등록이 시작됐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기 위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영주권자가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같은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여권 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이나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했기에 생업에 바쁘거나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재외 유권자들은 투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중앙선관위 웹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등록부터 결과 조회까지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6일 이내의 기간) 중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합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이번 투표는 선거일을 2주 앞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공관 등에 마련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치러진다. **▶**

### Q&A

**재외국민 선거권자이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정당, 후보자, 일반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 연근

김은옥 호주 | 2015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진흙을 먹으며 집을 지켰다  
가뭄으로 지붕이 내려앉을 때,  
소금쟁이 다리 끝에서 생기를 얻었다

곧게 서서 물위에 푸른 지붕을 얹고  
예쁜 꽃을 피워내고  
증발하는 물을 막아 비단잉어의 새끼도 받았다

억척스런 거뭇거뭇한 자국들, 그러나  
매끄러운 살빛에선 여자의 분 냄새도 난다

연근이 뿔혀나간 못,  
송송한 구멍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둥글게 퍼낸 사랑의 흔적

그가 부재중인 진흙은 자정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꼬르륵 연못의 배 앓는 소리 들릴 때  
우리, 그의 힘들었던 세월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말갱게 씻겨 도마에 오른 몸  
마지막 골수까지 다 퍼주고 공허로 누웠다

골다공증에 걸린 어머니의 뼈대 



## 가나·인도 등 한상 기업에 인턴 파견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선발한 청년 20여 명을 한상 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인도네시아, 인도, 가나 등 한상(韓商) 기업에 인턴을 파견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14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청년 20여 명을 선발했다.

이들 인턴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직무 교육·소양 교육·안전 관리 등의 교육을 받고, 6일부터 차례로 근무지에 배치됐다.

재단은 해외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세계한인무역인협회(월드옥타)와 손잡고 미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50여 명의 인턴을 내보낼 예정이다.

가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할 박정호 씨는 "낮선 외국이긴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설렌다"면서 "한상 기업의 성공 노후를 직접 보고 겪으며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내 사할린 동포들에게 연말 선물 전달

재외동포재단은 연말을 맞아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동포재단은 12월 18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를 방문했고, 22일에는 안산 고향마을을 찾아가는 등 전국 28곳의 사할린 동포 3천여 명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조규형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은 사할린 동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 재외동포 주제 논문·UCC 공모전 시상식



재외동포재단은 12월 4일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2015 재외동포 논문 및 UCC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재외동포를 주제로 공모한 논문,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가운데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12월 4일 열었다.

동포재단은 이날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2015 공모전 시상식 및 조사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학위논문상·논문공모전·UCC 공모전의 수상작 14편을 시상했다.

동포재단은 한민족 유대감을 높이고자 매

년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논문, UCC 공모전을 열고 있다.

조사연구용역 발표회에서는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올 한 해 국내외 동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재단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모국 초청 장학생들과 고려인마을서 김장



12월 12일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에서 모국 유학중인 재외동포 장학생들이 김장하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재단은 모국에서 유학 중인 재외동포 장학생들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에서 김장하기 봉사에 나섰다.

재외동포 장학생과 동포재단 직원 등 100여 명은 고려인 동포를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며 한민족으로서 유대감을 다졌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모국의 김장 문화를 체험하며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민족 동포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더욱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바른 말 고운 말

**제비초리** “아드님 뒷머리에 제비초리를 길렀네요.”  
“글쎄, 제비초리 기르는 건 어디서 봤는지 절대로 안 자르려고 하지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적인 머리 모양을 해서 남들의 시선을 모으곤 합니다. 그래서 위의 대화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비초리는 사람의 뒤통수나 앞이마의 한가운데에 곱을 따라 아래로 뾰족하게 내민 머리털을 말합니다. 그 부분이 마치 제비의 꼬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제비초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리'라는 말은 '꼬리'란 뜻인데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리'는 '꼬리'의 옛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초리'란 말은 어린아이를 때릴 때 쓰는 '회초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듬이질** 옛말에 세 가지 기쁜 소리로 아기 우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다듬이질하는 소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에서 대 이을 후순에 대한 든든함을 느꼈고, 책 읽는 소리에서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다듬이질 소리에서는 일상생활의 근면성과 안정을 읽었던 것입니다.

다듬이질은 우리의 고유한 옷감 손질법으로 옷감의 구김살을 펴고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다듬잇돌 위에 다듬잇감을 흥두께에 감아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집간 딸 집에 친정아버지가 처음 들를 때에는 다듬잇돌을 메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다듬이질로 불만이나 고통을 해소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애뜻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듬잇돌은 예전에 옷 짓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간혹 '다디밧돌', '다디미질' 등의 표현을 쓰는 이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방언의 형태로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제왕(帝王)의 칭
- 덕이 높은 승려
-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
-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띤 물체. 천연적으로는 자철석이 있고, 강철을 인공적으로 자기화하여 만들기도 한다.
- 형제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분
-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보통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이른다.

- '황태자'나 '왕세자'를 달리 이르던 말
-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
- 필기도구의 하나.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
-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 서양화에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 성질
-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 시멘트, 석회, 비료 따위의 원료로 쓴다.

### ▶ 오른쪽 방향 열쇠

- 짚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대표적인 조미료로,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다.
- 집 지을 때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
- 기관차에 여객차나 화물차를 연결해 궤도 위를 운행하는 차량.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른다.
- 말을 기르는 곳
-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
-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

### ▶ 아래쪽 방향 열쇠

-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따위를 동반한다.
-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
-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 따위를 캐냄
- 자동차, 기차, 전차 따위의 차량을 넣어 두는 곳
- 유리나 사기 따위로 동글게 만든 놀이 기구

### ▶ 2015년 12월호 정답

	양	두	부		병				
입	동	레			송	아	지		
	이	박		손	문		리		
미		미		열	녀	문	열		
역		국	수		방	아	쇠		
국	자			명	구				
				인	절	미	이		
간	장	간		행	방	불	명		
	마	성	공	송					



1

고성 거진항의 겨울 별미 명태

#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최고의 맛

**강**원도 강릉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양양과 속초를 거슬러 오르면 동해안에서 눈 내린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포구, 고성군 거진항이 나온다. 함박눈이라도 퍼붓는 날이면 포구의 겨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노송 사이로 보이는 거진항과 눈이 한 뼘 쌓여 있는 목선, 흰 눈이 쌓여 반짝거리는 백두대간 능선이 아름답고, 어머니 품 안같이 편안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파도가 높거나 일기가 불순한 날을 제외하고는 집어등을 밝힌 어선과 어선마다 토해내는 기관 소리 등으로

거진항은 생동감이 넘친다. 그물을 걷으러 나갔던 어선들이 돌아오면 항구는 온갖 싱싱한 해산물들로 생기를 띤다. 부둣가를 따라 즐비한 좌판 난전과 건어물 시장, 특이한 목소리와 신기한 손짓으로 연신 수신호를 교환하는 수협 공판장의 활력과 화톳불을 피워놓고 그물에 걸린 생선을 빼내는 아낙들의 투박한 손길에서 펄펄 뛰는 생명력이 길게 배어난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한류성 회귀 어종인 명태 수확량이 급감해 연안에는 '금태(金太)라 불릴 만큼



2



3



4



1. 지난해 10월 30일 거진항의 명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명태 낚시 게임을 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2. 거진항 전경 3. 거진항 명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명태 요리를 맛보고 있다. 4. 덕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 명태 5. 북어찜 6. 두부 북엇국 7. 북어 구이

보기 어려운 생선이 됐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 중 90% 이상은 원양태다. “맛 좋기는 청어, 많이 먹기는 명태”라는 말이나 “거진항에서는 개도 명태를 물고 다녔다”는 말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겨울철에 흔하던 명태, 근해에서 잡힌 연안태가 귀해졌다. 그러나 겨울 거진항에 가면 명태 요리의 감동적인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고성군의 대표 지역 축제인 ‘명태 축제’는 매년 10월 말에 나흘간 거진항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로 17회째를 맞은 축제에서는 명태 투호, 명태 걸기 덕장 시연, 명태 경매, 요리 체험 등 명태를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명태는 수많은 이름으로도 불린다. 잡힌 상태와 시기, 장소, 가공 방법 등에 따라 30여 가지가 넘는다. 갓 잡아 얼리지 않은 것은 ‘생태’, 푹푹 얼린 것은 ‘동태’, 한겨울 찬바람 속에 내걸어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말린 ‘황태’, 절반쯤 말린 ‘코다리’, 완전히 말린 ‘북어’ 등으로 구분되고, 유자망으로 잡은 것은 그물태, 낚시로 잡은 것은 조태라고 한다. 잡은 바다에 따라 동해에서 잡았으면 연안태, 베링해나 호호츠크해 산이면 원양태다.

명태는 ‘1어 4씩 4미’라는 표현만큼이나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명태의 살은 국이나 찌갯거리로, 내장은 창난젓으로, 알은 명란젓으로, 머리는 귀세미젓으로, 눈알은 구워 술안주로, 곤이는 그대로 국거리로 쓰인다. 북어 양념구이는 손질한 북어포를 6cm 길이가 되게 토막으로 잘라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유자에 재운 뒤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굽는다. 두부 북엇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북어체에 두부, 쪽파, 달걀 등을 넣어 끓인 것으로 해장에 좋다.

거진항 주변은 강원도 평창군 황계리, 인제군 북면 용대리 등과 함께 국내 황태 덕장 명소로 꼽힌다. 덕장에 걸려 있는 명태는 평균 영하 10℃ 이하로 떨어진 설악의 북풍한설 속에서 얼고 녹는 과정을 수차례 겪는다. 거무스름하던 명태는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3개월가량을 지내면 어느새 노란색을 띠고 살은 포실하게 변해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내게 된다. 수천, 수만 마리 명태가 턱을 쾅 채 걸려 있는 모습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치는 겨울 날씨 속에서도 훈훈한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정겨운 풍경으로 도시인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다. **창**

Tip

### ▶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은 북방식 전통 한옥과 초가집이 비교적 잘 보존된 민속마을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강원도의 바다와 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은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수백 년을 보냈다. 한국전쟁의 화마가 피해 갔고, 수시로 일어난 산불도 마을을 침범하지 못했다. 마을은 대문이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소박하다.

### ▶ 고성 여행 정보



#### • 당일 여행 코스

통일안보공원 → 화진포 → 거진항 → 건봉사 → 왕곡마을 → 송지호

#### • 고성 관광 안내

고성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33-680-3362)

고성군 문화관광 포털

(<http://tour.goseong.org>)

#### • 대중교통

고속버스 (서울 - 고성 2시간 40분 소요)

#### • 식당 정보

해맞이횃집 (033-681-5868)

신선식당 (033-682-5577)

# 코리안넷 만족도 조사



코리안넷은 설문조사 전문 기관인 (주)서던 포스트에 의뢰하여 코리안넷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기간은 1월 4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설문에 응하신 분 가운데 50명을 추첨하여 아마존 상품권 또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은 코리안넷(www.korean.net)에 들어와 상단의 '소통과 공감' 메뉴에 있는 설문조사를 클릭하면 응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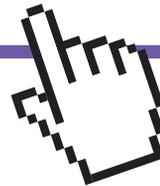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